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나

☞ 19면에서 계속

간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말로다가 몸을 붙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만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게 되고, 둘이 아닌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둘이 아니게 착하게 됨으로써 바로 물리가 터지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따라오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고 말로다가 이놈 저놈 하고서 욕을 아무리 해 봤던들 더욱더 차게만 느껴지고 더욱더 멀어만지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없는 가르침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여하게 깨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을 들어 보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그지없이 깨칠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말입니다, 계향이라고 해서 계를, 280계나 350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계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단 십계도 못 지킵니다. 단 오계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첫째, 계향이라고 했으니까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잘되어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부처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직선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잘 지키는 것만 계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향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또는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목을 가져오죠, 미움이 없어지죠, 증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사형 사제들이 모두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한 형제들 간에, 부모자식지간에도 화목을 가져온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향 아닌 계향을 지킨다면, 돌아가는 용도에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을 '너만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향이니, 이것은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돼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껍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도 네 몸이니까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찢고 찍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둘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정향' 할 때에 우리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봇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밝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혜향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혜향입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잘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못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회개다 해서 끄달리고, 이거는 뭐 끄달리는 데 아주 난장판이 돼 있어요.

'혜향' 했으니 다음에 해탈향이 있죠. 만물만생의 무명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여여하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외부의 모든 중생들이나 내면의 자생 중생들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게 다스리고 여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향에서부터 잘해 나가신다면 계향은 정향에 하나가 되고, 혜향이 잘되면 정향에 또 하나가 되고, 정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도 모두가, 다섯 가지가 모두 하나의 정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지견향, 그것은 우주 일체 만물만생을 다 밝게 보고 보살피며 바로 걸림 없이 여여하고 구족하게 다스리면서, 밝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많은 중생들을,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응신으로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이나, 말이 있는 중생이나 말이 없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천백억이다 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자생 중생들을 다스려서 한 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생 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부분 부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 작용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여러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정말 천백억이라는, 아니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 하나하나가 바로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서 자기가,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습니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죠.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게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형성을 시켜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죽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껍데길 벗겨 버리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땅히 '내가 내가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부처는 중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요, 중생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다. 모두가, 시발점도 종점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시발점도 종점도 따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심으로서 모든 걸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심으로서 동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이 바로 자성 부처를 상봉해서 잘 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설이 됐다 이 소립니다. 가설이 돼서 돌아가니까 남이 모른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만큼이나 에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어찌 거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끼면 빼고 뺐으면 끼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면 정말로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시장하지 않았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고, 그리고 주인공에다가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면 화목을 가져오고 그 마음도 밝아져서 둘이 아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자비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줄 수 있어.'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7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상담 : 1688-9099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